

## 국제사회의 ODA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

정지선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3460-1078)

## 차 례 ●●●

1. 배경
2. 최근 국제사회의 ODA 평가 현황
3. 평가 활용 관련 주요 쟁점과 사례
4. 우리나라 현황과 과제

## 주요 내용 ●●●

- ▶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을 중심으로 ODA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공여국의 원조역량을 강화하고 ODA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보고서 결과를 공유하고 환류(feedback)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
- ▶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평가품질 관리,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 평가보고서 공개 활성화 등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호주·영국 등 주요 공여국은 ODA 평가의 품질관리와 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메타 평가를 적극 실시
  - 세계은행·캐나다·ADB 등은 평가에서 도출된 제언에 대해 원조기관 경영진 차원의 공식 답변을 평가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온라인 DB에 공개
- ▶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 KOICA, EDCF 등을 중심으로 환류 및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보강해왔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실정임.
  -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 평가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제언별 경영진 답변과 환류 여부, 이행점검 상황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ODA 성과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보고서 요약뿐 아니라 전문을 공개하고 공개 간담회, 비디오 컨퍼런스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하겠음.
  - 아울러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KOICA, EDCF 등 원조기관의 평가예산 및 인력 확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함.

## 1. 배경

■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을 중심으로 ODA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그동안 원조기관의 ODA 평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평가에서 도출된 교훈과 제언을 활용하는 데에는 소홀하였음.
- 공공예산으로서 ODA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환류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
- 세계은행은 2014년 7월 발표한 『세계은행 지원의 교훈과 결과』 평가보고서에서 과거 사업에서의 교훈 도출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sup>1)</sup>

■ 최근 주요 공여기관들은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품질 관리, 환류 시스템 구축, 평가보고서 공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보고서의 정보와 제언의 신뢰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주요 공여기관은 기존 평가보고서의 품질 점검과 개선방안 도출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제언을 향후 ODA 정책과 사업,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
- 평가보고서의 질적 제고와 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위해 평가 결과 보고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환류 및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보강해왔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태

- 원조효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ODA 평가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평가품질 관리와 결과 활용을 저해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상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ODA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ODA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에 그쳤지만, 50% 이상이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사업결과의 효과’에 관심이 높다고 답변하여 ODA 성과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

■ 이에 본고는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최근 ODA 평가의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활용과 관련된 공여기관의 주요 쟁점별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ODA 평가 현황에 비추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1) World Bank(2014), *Learning and Results in World Bank Operations: How the Bank Learns*.

## 2. 최근 국제사회의 ODA 평가 현황

■ OECD DAC 산하의 평가작업반(Evalnet) 회원기관이 2014년 8월 DAC에 제출한 ODA 평가계획에 따르면 현재 계획되거나 진행·완료 단계에 있는 평가는 총 641건에 달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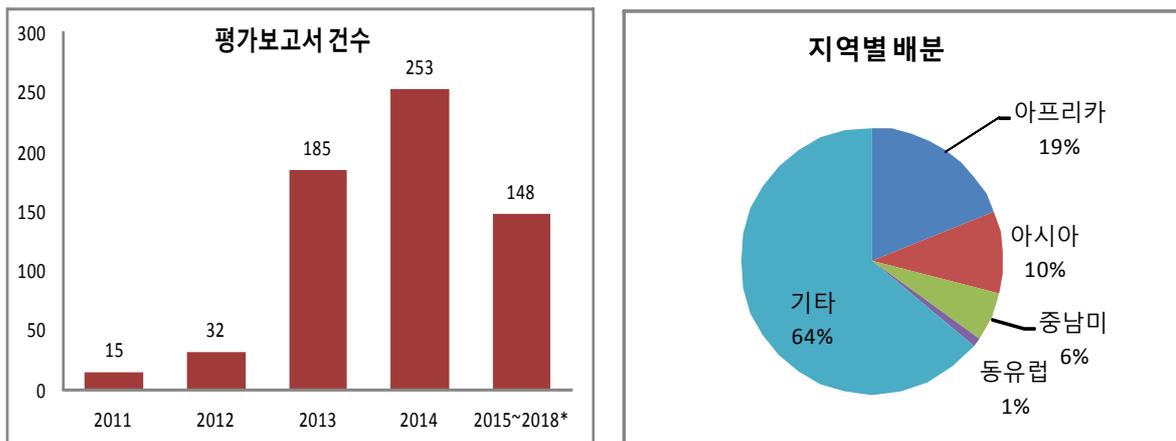
- DAC Evalnet은 회원기관간 정보공유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ODA 평가계획을 토대로 현재 계획·추진·완료 단계에 있는 평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2013년 185건에 이어 2014년에는 총 253건의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 단계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대한 평가가 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 10%, 중남미 6%, 동유럽 1%의 순임.

- 단 최근 주제별·분야별 평가의 증가로 전체 평가 중 64%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
- 평가대상 국가별로 보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평가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고, 모잠비크와 베트남이 각각 11건, 팔레스타인과 우간다가 각각 10건, 가나 9건으로, 베트남·팔레스타인·아이티를 제외하고는 ODA 수원비중이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취약국에 대한 평가가 대종을 이룸.

그림 1. Evalnet 회원기관 연도별 평가보고서 건수 및 지역별 배분 비중

(단위: 건, %)



주: 1) 공식 통계가 아니라 Evalnet 회원기관 평가계획의 온라인 취합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

2) 2011~13년에 시작하여 아직 진행 중이거나 완료 단계에 있는 평가보고서 정보도 포함, 2009년 시작하여 진행 중인 평가 제외.

2005~18년 수치는 EC, 캐나다 외교부, 세계은행 독립평가그룹 등이 제출한 중장기 평가계획에 근거.

자료: OECD DAC Evalnet 회원기관 평가계획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sup>3)</sup>

2) DAC 산하 평가작업반인 Evalnet(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은 원조기관 평가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평가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새로운 평가 가이드라인 및 방법론 개발 등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현재 회원수는 29개 양자공여국과 7개 다자기구 등 총 36개.

■ 2010년 Evalnet에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기관들은 연평균 24건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본부 평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균 19인으로 직원 1인당 평균 평가건수는 1~2건 수준<sup>4)</sup>

- 룩셈부르크가 평가직원 1인당 10건의 평가보고서를 담당하여 평가건수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4.5건, 독일 3.6건에 이어 2.6건으로 DAC 평균을 상회
-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직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60%가량은 평가 직원의 전문성 및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답변

그림 2. Evalnet 회원기관별 평가직원 1인당 평가건수

(단위: 건)



주: 타공여기관은 2010년 Evalnet 설문조사 결과 참조, 한국은 2014년 기준 KOICA, EDCF 평가부서 직원 및 평가보고서 계획건수를 기준으로 합한 수치를 참고하여 기존 통계 업데이트.

자료: OECD DAC(2010), *Evaluation in Development Agencies*; KOICA 및 EDCF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평가 활용 관련 주요 쟁점과 사례

#### 가. 평가품질 관리

■ 평가보고서의 제언이 ODA 정책수립과 사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언의 시의적절성, 신뢰성, 명확성, 연관성 등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조기관 차원의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함.

- 대부분의 DAC 공여국은 2010년 'DAC 개발평가 품질기준(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을 ODA 평가의 질적관리를 위한 주요 지침으로 활용

3) <http://www.oecd.org/dac/evaluation/evaluation-plan-inventory.htm>. (접속일: 2014. 8. 25.)

4) OECD DAC(2010), *Evaluation in Development Agencies*.

- DAC 개발평가 품질기준은 평가 계획 및 설계, 시행 및 보고, 환류 및 활용 등 평가 추진단계별로 품질관리 의 근거를 제시
  - 평가 배경·목적, 평가팀 전문성, 개발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자료수집·조사방법의 객관성, 증거 기반 결론 도출, 결론과 제언의 논리적 연계성 등을 포함하여 총 37개의 품질관리 항목 제시
  - 특히 환류 및 활용 부분은 평가 결과의 활용, 제언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체계적 답변과 이행, 공개 및 배포 관련 항목을 포함

표 1. DAC 개발평가 품질기준의 환류·활용 관련 항목

평가항목	내용
결과 활용	- 평가 결론, 제언, 교훈의 명확성·연관성·이행가능성·시의성 - 공여국 및 수원국 관련 이해관계자의 평가보고서 접근성
제언에 대한 체계적 답변 및 이행	- 제언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공식 답변 - 제언의 대상, 이행주체의 구체적 명시 - 제언의 이행여부 점검
공개 및 배포	- 평가 결과의 공개 - 원조기관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체계적 배포

자료: OECD DAC(2010),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호주·영국 등 주요 공여국은 ODA 평가의 품질관리와 장단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기존 평가보고서를 다시 평가하는 메타 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sup>5)</sup>

- 원조기관이 특정기간 동안에 실시한 평가보고서 전부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DAC 개발평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한편, 평가예산 및 인력, 평가제도 및 역량 등 평가 시스템 전반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범위의 메타 평가 실시

표 2. 주요 공여국별 ODA 메타 평가 실시사례

기관	평가제목	대상 및 목적
호주 외교통상부 (2014)	호주 원조평가의 품질 평가 (Quality of Australian aid operational evaluation)	- 2012년 실시된 사업평가보고서 87건 - 호주 원조평가의 품질 및 유용성 평가, 개선방안 모색
미국 국제개발부 (2013)	USAID 평가의 품질 및 범위 평가 (Meta-evaluation of quality and coverage of USAID evaluations 2009-2012)	- 2009~12년 실시된 평가보고서 340건 - USAID 평가의 품질 및 장단점 평가, 개선방안 제시
영국 원조영향평가위원회 (2011)	DFID 전략평가에 대한 종합연구 (Synthesis Study of DFID's Strategic Evaluations 2005~10)	- 2006~10년 발간된 전략평가보고서 149건 - DFID 전략평가의 패턴과 특징 종합분석

자료: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2014); USAID(2013); ICAI(20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메타 평가(meta-evaluation)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로, 1969년 Scriven이 최초로 용어를 도입한 이후 1981년 Daniel L. Stufflebeam이 체계화한 개념. ODA뿐 아니라 교육·공공행정·보건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외에도 평가환경 및 예산·인력·평가과정·활용 및 환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추세.

- 호주 외교통상부는 2014년 ‘호주 원조평가 품질평가보고서’에서 87건의 사업평가보고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특징, 장단점 등을 평가하는 한편, 평가품질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sup>6)</sup>
  - DAC 개발평가 품질기준을 참고로 15개 평가항목을 설정한 후 87건의 평가보고서 품질에 대해 항목별로 검토
  - 호주 원조평가보고서의 품질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목적 ② 평가대상 사업의 성과관리 ③ 제언의 명료성 및 연관성 ④ 평가예산 및 기간의 적절성 ⑤ 평가팀 구성의 전문성으로 나타남.
- 미국 국제개발부(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2013년 『USAID 평가의 품질 및 범위 평가보고서』에서 2009~12년 사이에 실시된 평가 중 34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종합평가
  - 호주와 마찬가지로 DAC 개발평가 품질기준을 참고로 평가 항목을 설정한 후 항목별로 평가보고서 340건의 품질을 검토
  - USAID 평가의 경우 자료수집·조사방법의 객관성, 증거에 기반한 결론 도출 등은 우수하였으나, 평가팀 구성의 전문성, 결론과 제언의 논리적 연계성, 제언 이행주체의 구체성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핀란드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메타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스웨덴·독일·덴마크 등도 메타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음.

## 나. 환류와 이행점검

- 평가 결과가 ODA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언에 대해 원조기관 경영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영진 답변 시스템(Management response system)이 필요
  - 평가 제언의 적절성과 유용성을 판단하고 이를 경영진이 동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 Evalnet의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30개 응답기관 중 20개 기관이 평가 제언에 대해 경영진이 답변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답변
- 경영진 답변 시스템의 대표적 유형은 경영진 답변과 이행방안을 평가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는 캐나다 원조청(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사례를 들 수 있음.

6) 2013년 11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구 호주원조청(AusAID)이 외교통상부로 통합되었으며, 평가대상인 사업평가보고서는 모두 구 호주원조청 차원에서 실시.

- CIDA는 국별·주제별·분야별·지역별 평가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위주로 제언에 대한 동의 여부, 이행범위 관련 경영진 답변과 조치, 담당주체와 기한을 보고서 부록에 포함
- 추진방안의 이행주체를 사업부서장, 예산팀장, 현지 사무소장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언별 이행기한도 명시
- 캐나다뿐 아니라, 영국·핀란드·세계은행·EC 등 많은 공여기관에서 경영진 답변의 부록첨부 방법을 활용

표 3. 캐나다 원조청 모잠비크 국별평가 제언별 경영진 답변 및 이행조치 사례

제언	경영진 답변 및 조치	담당주체	기한
(지원분야 및 주제) 1. CIDA의 모잠비크 국별 ODA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위주로 지원 2. 현지정부 및 타공여기관과 협력하여 농촌개발,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강화방안 모색	1. 동의. (모잠비크 정부, 타공여국과 대화를 통해 CIDA의 적절한 분야별 역할 모색 예정) 2. 동의. (중점분야별 정책대화 및 기술협력 확대 방안 모색 예정)	현지사무소장	연도별 지속 추진
(성과관리) 1. 현지 사무소는 프로젝트 지원 관련 성과관리 및 이행상황 파악·보고를 강화 2. 사무소 인력 및 협력기관 대상 성과관리 훈련 고려	1. 동의. (프로젝트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선, 이행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예정) 2. 훈련 및 포럼 등을 통해 사무소직원과 협력기관 성과관리역량 강화예정	본부 사업팀, 현지사무소장	

자료: CIDA(2010), *Mozambique Country Program Evaluation-Synthesis Report-2004-2005 to 2008-2009*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세계은행의 독립평가부서(IEG: Independent Evaluation Group)는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제언의 환류 및 이행을 추적할 수 있는 ‘경영진조치 DB(MAR: Management Action Record)’를 구축

- 경영진조치 DB는 세계은행 그룹에서 발간한 평가보고서별 제언과 경영진 답변, 환류 이행점검 내용과 담당자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기관 내외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
- 2013년 세계은행의 개발효과성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9~13년 중 실시된 평가보고서 중 23개 평가에서 제시된 97개 제언의 이행점검 결과 전체 제언 중 62%가 반영
- 평가 제언별 이행범위를 전체이행, 부분이행, 불이행 3단계로 구분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이유를 제시

표 4. 세계은행 경영진조치 DB 평가보고서 사례

보고서 제목	제언	경영진 답변	이행 여부
1990~2007년 현장중심접근 성과평가	1) 현지 정치·경제·제도적 환경 관련 종합분석 기반 현장중심 접근 강화	1) 현장중심 접근의 범분야적 성격을 고려할 때 종합 분석에 기반하는 방법론에 동의, 향후 이행현황 모니터링 예정	부분 이행
	2) 지방정부 역량강화 지원	2) 지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에는 동의, 단 역량강화에 특화되지 않은 세계은행의 기관특징과 다른 공여국지원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에 역량강화 지원을 포함하지는 않음 예정	
영향력평가 종합평가	1) 영향력평가 시행 시 품질관리 기준 적용	1) 지역국 분야팀 품질관리 관련 분야별 정보 제공, 분야별 영향력평가를 위한 컨설팅 확보	
	2) 방법론 확대적용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제고	2) 세계은행 공개정보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접근성 확보	

자료: 세계은행 독립평가부서 MAR 데이터베이스 <https://ieg.worldbankgroup.org/mar>. (검색일: 2014. 8. 21.)

## 다. 공개 및 배포

- 공개와 배포 측면에서도 공여기관의 홈페이지에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이메일 배포 및 공지, 공개 간담회 및 세미나, 비디오 컨퍼런스, 우편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강화
  -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원조청(Irish Aid)은 2012년 ‘잠비아 국별평가’ 결과의 홍보를 위해 사전단계부터 평가시행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를 1·2·3 그룹으로 구분
    - 현지 사무소, 잠비아 정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은 제1그룹, Irish Aid 평가팀, NGO 등은 제2그룹,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Irish Aid 분야팀, 지역팀과 아일랜드 국민 등은 제3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 결과의 공개를 차별화
  - 국별평가 완료 후 외부 컨설턴트가 평가보고서 전문 및 요약본을 Irish Aid 평가팀에 제출하면 평가팀에서는 이를 파워포인트 자료·책자·비디오파일 등으로 제작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감사보고서 및 연례보고서에 수록하여 공개
  - 영문보고서 전문과 요약본을 수원국 정부 홈페이지와 NGO 홈페이지에 공개

표 5. 아일랜드 원조청 잠비아 국별평가 결과 홍보·배포 그룹 구분

구분	내부자	외부자
제1그룹	감사위원회, 외교부 장관, Irish Aid 경영진과 평가팀장, 잠비아 현지사무소	잠비아 정부, 잠비아 사업대상지 주민, 잠비아 재정부 및 지방정부, 교육부 및 지역개발부
제2그룹	Irish Aid 평가팀, 정책 및 효과성팀, 본부 사업별 담당팀	외부 자문관, 아일랜드 및 잠비아 NGO
제3그룹	Irish Aid 교육팀, 아프리카부, 다자협력부	외부 컨설턴트, DAC Evalnet, 아일랜드 국민

자료: Irish Aid(2012), *Evaluation of the Irish Aid Zambia Country Strategy Paper 2007-2010*, 정지선, 오태현(2013),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4. 우리나라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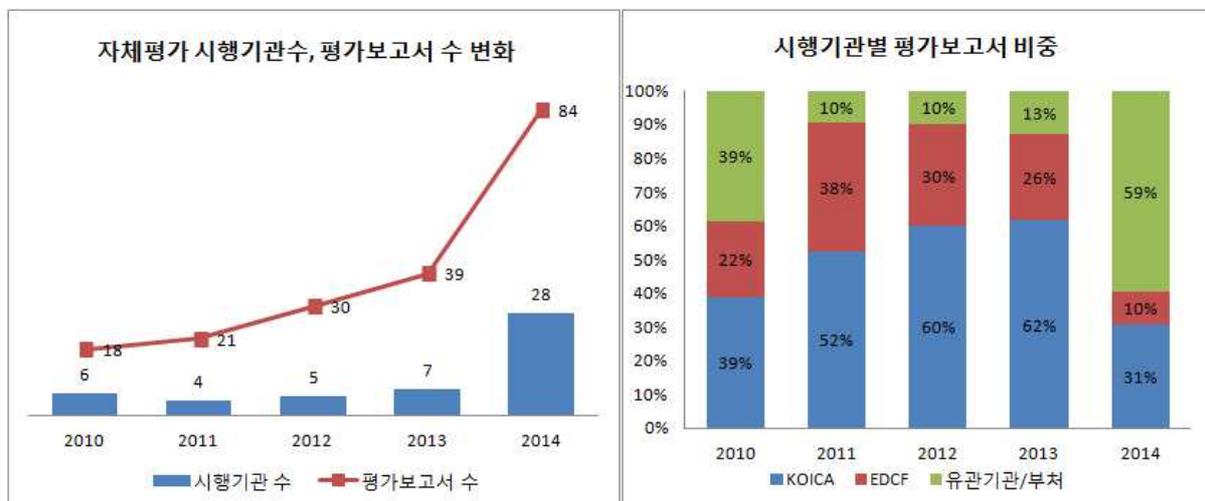
- KOICA, EDCF, 유관부처 등 시행기관이 추진한 자체평가는 2010년 18건, 2013년 39건에서 2014년 84건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ODA 평가에 참여하는 시행기관 수 역시 2010년 6개 기관에서 2014년 28개 기관으로 급증<sup>7)</sup>
  - 2014년 자체평가 참여기관의 급증 현상은 2013년 7월 모든 ODA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평가계획과 결과를 의

7)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통합평가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원조시행기관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평가소위 주도로 실시하는 소위평가를 조정, 심의 및 총괄.

- 무적으로 평가소위에 제출하도록 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평가관련 규정 개정에 주로 기인<sup>8)</sup>
- 참여기관별 평가보고서 비중을 보면 2010~13년(누계)에는 KOICA 평가보고서가 56%(6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EDCF 29%(31건), 교과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재부 등 유관부처·기관이 16%(17건)의 순이었으나, 2014년에는 KOICA의 비중이 31%(31건)로 감소하고 EDCF는 10%(10건), 유관부처·기관 59%(60건)를 각각 기록
  - 주요 시행기관인 KOICA와 EDCF의 평가가 우리나라 통합평가계획상에서 추진되는 전체 ODA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3. 우리나라 원조시행 기관 자체평가 보고서 및 참여기관 변화: 2010~14년

(단위: 개, 건)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통합평가소위원회 의결안건의 2010~13년 자체평가 결과 및 2014년 자체평가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sup>9)</sup>

■ KOICA와 EDCF의 경우 본부 평가부서에서 담당하는 평가보고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예산과 인력의 변화는 크지 않음.

- KOICA 평가보고서 수는 2011년 11건에서 2014년 31건으로 약 3배 확대되었으나, 평가 예산은 10억 원에서 12억 8,000만 원으로 1.2배 증가됨에 따라 1개 평가보고서에 투입되는 평균 예산규모는 9,0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
- 평가보고서 수와 평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EDCF의 경우, 평가보고서는 2011년 8건에서 2014년 10건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고, 평가 예산은 2억 7,800만 원에서 2014년 4억 6,300만 원으로 배증하여 1개 평가보고서 평균 예산도 3,4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약 1.3배 증대

8) 2013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계획 수립 제출 및 자체평가 결과 보고의무’를 명문화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9) 국무조정실의 ODA Korea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 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 의결안건 제7-1호, 제9-1호, 제10-1호, 제12-1호, 제14-1호 참고.

- KOICA, EDCF 모두 평가보고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본부 평가담당부서의 인력은 확대되지 않고 있어 1인당 평가보고서 수가 DAC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표 6. KOICA, EDCF 평가보고서 수 · 예산 변화: 2011~14년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KOICA				EDCF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평가보고서 수(a)	11	18	24	31	8	9	10	10
평가 예산(b)	1,000	1,180	1,280	1,280	278	280	461	463
평가보고서 1건 평균 예산(b/a)	90.9	65.6	53.3	41.3	34.8	31.1	46.1	46.3

주: 종료평가 및 중간평가를 제외한 프로젝트 사후평가, 국별·주제별·형태별·분야별 평가만을 포함.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통합평가소위원회 의결안건의 2011~13년 자체평가 결과 및 2014년 자체평가계획, KOICA 및 EDCF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환류와 이행점검) 우리나라도 ODA 평가환류 및 이행점검 시스템을 평가소위 및 시행기관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상황

- 2013년부터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지침에 따라 모든 자체평가 실시기관은 평가 제언에서 도출된 개선과제 추진계획을 평가소위에 의무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
- 그러나 평가환류 및 이행점검 내용이 평가소위 안건으로만 논의되어 정부부처, 시행기관 및 전문가 그룹인 민간위원회에만 공개되고 시민사회·국민·수원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성은 미흡한 실정
- KOICA, EDCF 등 각 기관 내부 차원에서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서별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기관 내부에서만 정보가 공유
- ODA 평가 경험과 전문성, 전담인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유관부처·기관은 체계적 환류 시스템이 더욱 취약

■ (공개 및 배포) 공개 및 배포 역시 KOICA만이 평가보고서 전문과 요약물 홈페이지에 공개 및 발간하고 있으며, EDCF는 평가보고서 요약만을 공개하고 유관부처·기관은 대부분 자체 홈페이지 차원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평가소위 차원에서도 ODA Korea 홈페이지에 평가소위 의결안건의 결과보고 형태로 요약 내용만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이는 평가소위 주도의 소위평가도 유사<sup>10)</sup>
- 평가과정에서 수원국과 공동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제한적 범위의 파트너십 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평가 결과 공유 차원에서 평가보고서 전문을 영문화하여 수원국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은 부재
- 시민사회와 대국민 정보접근성 차원에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간담회나 성과발표회 등이 극히 제한적

10) 2013년 자체평가보고서만 ODA Korea 홈페이지에 압축파일 형태로 전문 공개.

■ **(향후 과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평가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부록으로 제언별 경영진 답변과 환류 여부, 이행점검 상황을 첨부하여 시민사회, 국민, 수원국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은행, ADB와 같이 경영진 답변 및 이행점검 내역을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보고서의 요약뿐 아니라 전문을 공개하고 수원국에도 영문보고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
-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는 수동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메일 배포, 공개 간담회 및 세미나, 비디오 컨퍼런스, 보고서 발간 및 우편발송 등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긴요한 실정

■ **평가 활용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환류 및 이행점검, 공개 및 배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조기관 차원의 평가 예산 및 인력 확충,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

- KOICA, EDCF의 경우 지속적인 평가보고서 확대 추세에 비해 담당인력 및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거나 증가가 억제되고 있어 평가 활용 강화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평가 예산과 인력 확대가 시급한 실정
- 원조기관 인력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평가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이는 평가품질 관리 역량의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할 필요
- 평가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평가보고 체계를 투명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 평가과정에 수원국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중심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무소 차원에서도 성과 관리 및 평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책정이 필요
- 아울러 평가를 조직 차원의 학습과 정책, 사업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영진 의지와 분위기 조성도 중요 **KIEP**